

광주·전남 청년 이래서, 떠난다

광주·전남 1년 평균소득 2432만원
수도권 가면 소득 1년 새 28% 늘어
고향 지킨 청년 소득 증가율의 2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격차 완화 정책 시급

광주·전남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의 소득이 1년 새 28%(640만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에 남은 청년의 소득 증가율(12.2%)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관련기사 3면〉 이 내용은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전 국민의 20% 표본으로 구축된 소득이동통계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자료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광주·전남에서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 55만2000명 중 수도권을 향한 1만3000명을 포함해 2만3000명이 타권역으로 순유출됐다. 광주·전남으로 들어온 소득 있는 청년층은 1만8000명에 그쳤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권역 간 순이동률을 보면 수도권(0.5%)과 충청권(0.4%)은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았고, 서남권(-1.0%), 대구·경북권(-1.1%), 동남권(-1.1%)은 유출이 더 많았다.

광주·전남권에서는 청년 남성 권역 간 유출률(-0.8%)보다 여성(-1.1%)이 더 컸다.

광주·전남 청년들은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권역에서 일하면서 평균적으로 500만원을 더 벌었다.

지난 2022년 광주·전남 청년의 평균 소득은 2432만원이었지만 다른 권역으로 옮긴 1년 새 소득이 2932만원으로, 20.5%(500만원) 늘었다.

권역 간 이동하지 않은 청년의 소득 증가율 12.2%의 1.7배에 달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청년 소득은 권역을 옮겨 일한 청년의 평균 소득(2951만원)을 밟았고 동남권(3104만원), 충청권(3074만원), 수도권

(2897만원) 소득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전남 청년이 일자리를 수도권으로 옮겼을 때 소득은 2282만원에서 2922만원으로, 평균 28.0%(640만원) 더 많아졌다. 비수도권으로 옮겼을 때의 증가율은 15.7%에 그쳤다.

남성의 경우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잡으면서 다른 권역보다 소득이 크게 올랐다.

광주·전남 청년 남성의 소득은 2664만원에서 3405만원으로, 1년 새 27.8% 뛰었다.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권(26.5%), 동남·부산·경남권(22.8%), 충청권(17.0%) 순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남성의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광주·전남 청년 여성도 수도권으로 옮겼을 때 소득 증가율이 28.4%(1883만~2418만원)로 높았다. 국가데이터처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가운데 여성의 소득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은 건 제조업에 치중된 지역 일자리 특성상 여성층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광주·전남 권역에서 시·도 간 일자리를 옮겼을 때(12.0%)와 거주 지역에 머물렀을 때(12.2%)는 소득증가 효과가 낮은 편이었다.

다른 권역으로 일자리를 옮긴 3명 중 1명은 계층도 올랐다.

청년의 소득금액을 5개의 분위별로 나눴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간 광주·전남 청년의 계층이 오른 비율은 31.7%로, 옮기지 않은 청년의 상승비율(22.8%)보다 높았다. 성별로 나눠보면 청년 남성이 권역을 옮기면서 상향 이동하는 비율은 31.2%, 여성은 32.3%로 나타났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임금·산업 격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상승이 두드러져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구 권역(수도권·광주전남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 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권역 내 인구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고로 미장 작업자 1명과 철근작업자 2명, 배관보온작업자 1명 등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

미장 작업자 A(47)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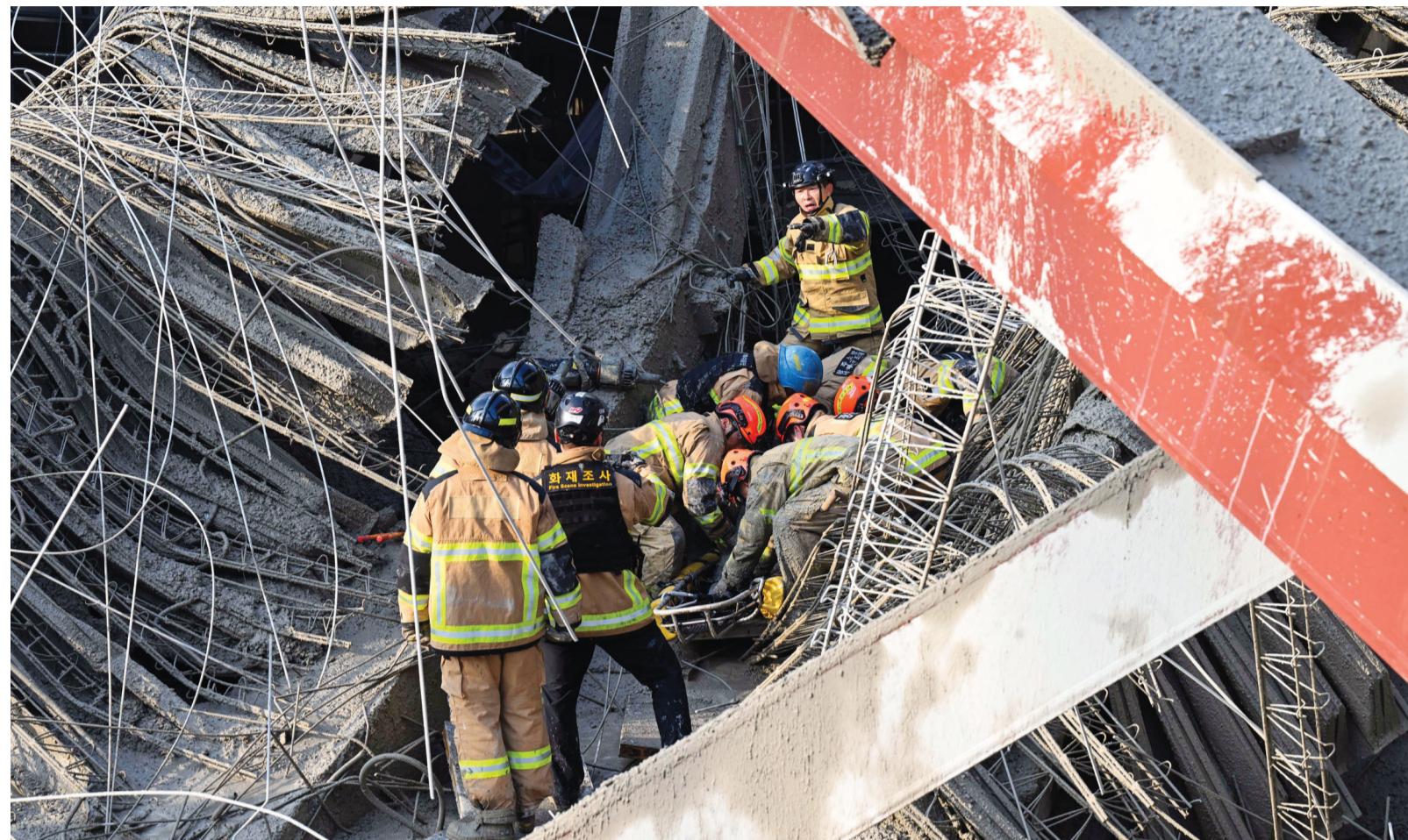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순사건 국가가 반성하고 피해자 아픔 치유 ▶7면

북스 - '세계일주 미술 여행' ▶14·15면

KIA 한준수 "공·수다 잘 하는 포수 되겠다" ▶18면

"제발 살아서 나오라" 애타는 목소리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119 구조대가 양상하게 휘어진 철골 구조물 사이에서 매몰자 수색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대표도서관' 건물 붕괴…1명 숨지고 3명 매몰 소방당국, 특수구조대 등 동원해 밤샘 구조 작업

광주시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2·6면〉

1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미장 작업자 1명과 철근작업자 2명, 배관보온작업자 1명 등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

미장 작업자 A(47)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나머지 작업자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확인돼 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장에 철골 구조물과 콘크리트, 철근 등이 쌓여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몰자는 신체 일부만 확인되고 있으며 생존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매몰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붕괴 사고는 2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탈수하던 중 슬래브(바닥)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철근 구조물 사이를 서로 잇는 탈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붕괴 사고 이후 2층 옥상에서 지하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드론으로 잔해의 틈을 활용해 분석하고, 열화상카메라로 체온 신호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대표도서관 사고 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와 매몰자 가족 연락 등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표 수리…내각 첫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밝힌 사의를 받아들여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

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혐의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